

에너지 · 원자력에 관한 여론조사의 국제비교

일본의 에너지 · 정보공학연구회의는 2월7일 작년 10월에 실시된 「에너지 · 원자력에 관한 여론조사와 국제비교」의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에 같은 설문으로 실시된 미국, 독일에서의 여론조사결과를 비교한 내용을 소개한다. 일본의 경우는 20세 이상 성인 3,200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회답률 79.1%, SA=단일회답, MA=복수회답).

日本에너지 · 情報工學研究會議

자국에 최대이익을 가져온다고 생각되는 에너지(MA)

일본과 미국 모두 「태양에너지」가 60%와 41%로 1위, 「원자력」이 44%와 30%로 2위로 돼있지만 2가지 에너지 모두 일본쪽이 높다. 미국에서는 「태양에너지」, 「원자력」 모두 89년에 비해 3포인트 낮아졌다. 「석유」는 일본이 16%로 3위지만 지난 3년간 같은 비율로 돼있어 미국과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체에너지구성의 일부로서의 원자력의 필요성(SA)

에너지구성에서의 원자력 필요성에 대해 원자력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한 비율이 일본보다 미국쪽이 높다. 일본에서는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한 비율이 지난 3년간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지만 미국에서는 모두 같은 비율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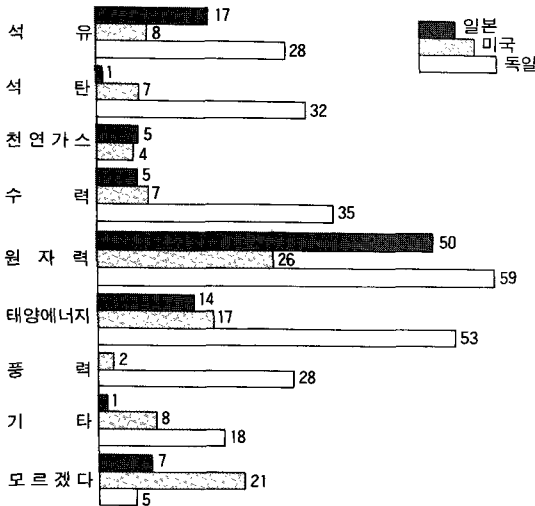
〈에너지구성상의 원자력의 필요성전망(SA)〉

	필요성이 높아진다	필요성이 높아지지 않는다	모르겠다	회답없음
일본 91	67		15	18
일본 90	65		18	16
일본 89	60		21	19
캠브리지리포트				
미국 91/ 11	76		18	7
미국 91/ 2	76		13	11
미국 89/ 5	76		14	10

앞으로 10년간의 주요전원전망(일본과 미국 10년간 SA, 독일 20~30년간 MA)

단일회답인 일본과 미국을 비교해보면 일본, 미국 모두 원자력이 1위(독일도 복수회답이기는 하지만 1위다)이지만 미국의 비율은 지난 3년간

〈앞으로 10년간의 주요전원전망〉
(일본[91.10] 미국[91.11]은 SA, 독일 [91.5]은 MA)



일본 비율의 거의 절반 가까운 20%대로 돼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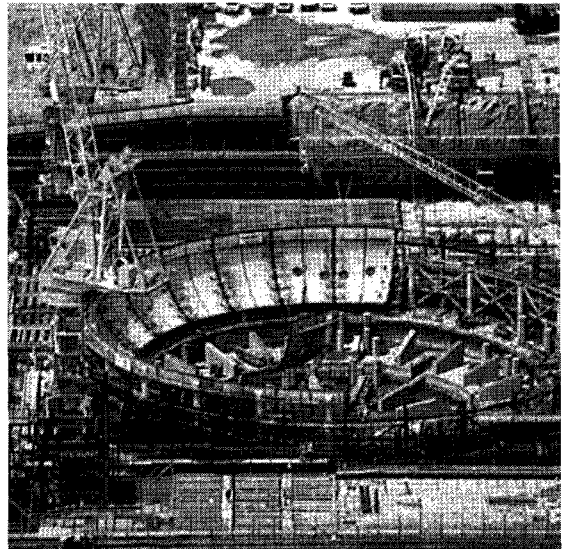
91년에는 일본에서는 「석유」가 2위, 「태양에너지」가 3위지만 미국에서는 「모르겠다」는 회답이 2번째로 많고 「태양에너지」라는 회답이 3번째, 「석유」가 4번째로 돼있다.

미국에서는 「원자력」이 앞으로의 주요전원의 1위로 돼있다. 그 다음이 「태양에너지」인데 지난 2년간 20%의 사람이 「모르겠다」고 회답하고 있어 일본에 비해 미국에서는 앞으로의 주요전원에 대해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과 독일을 비교하면 「원자력」이 일본(50%)과 독일(59%)에서 1위로 돼있다.

일본에서는 「석유」가 2위, 「태양」이 3위지만 독일에서는 「태양에너지」, 「수력」, 「석탄」의 순서로 돼있고 「석유」와 「풍력」이 동률로 5위가 돼있다. 독일에서는 일본에 비해 앞으로의 주요전원으로의 「석유」의 비중이 낮다.

단일회답과 복수회답의 차는 있지만 독일에서는 「태양에너지」가 2위다. 일본에서는 3위로 독일쪽이 앞으로의 주요전원으로서의 「태양에너지」의 비중이 높다. 이것은 앞으로의 전망기간이 독일쪽이 20~30년으로 장기간이라는 점



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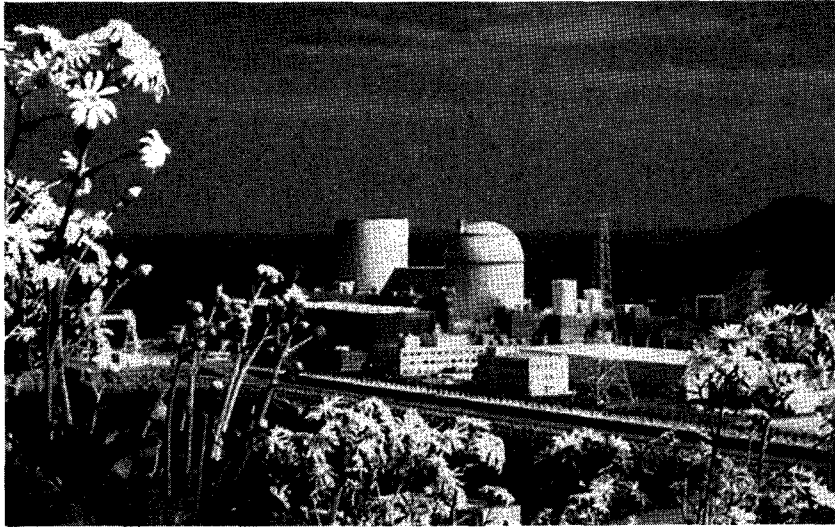
앞으로의 전력수요에서의 원전의 중요성(SA)

원자력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매우 중요하다」와 「어느 정도 중요하다」의 2가지 의견을 합한 비율이 일본은 73% → 75% → 79%로 지난 3년간 조금씩 높아지고 있고 91년에는 80% 가까이 돼있다. 미국도 80% → 77% → 81%로 80% 안팎에서 변동하고 있지만 「매우 중요하다」의 일본과 미국의 비율차는 22% → 12% → 15%로 돼있어 지난 3년간 계속 미국쪽이 높아 원자력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국쪽이 높은 것으로 돼있다.

앞으로의 원자력발전소건설에 대해(SA)

원자력발전소건설에 대해 일본, 미국, 독일 3국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어떠한 형태로든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회답한 사람의 비율은 일본 42%, 미국 32%, 독일 31%로 돼있다.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 사람의 비율은 일본이 많고, 미국에서는 현상을 유지해야 한



〈원자력발전소건설(SA)〉

	어떤 형태로든 추진	현상 유지	어떤 형태로든 폐쇄	모르겠다	회답 없음
일본(91.10)	42		23	28	5
미국(91.2) 캠프리지	32		48	15	5
독일(91.5/6)	31		30	28	13
구서독	28		32	29	13
구동독	43		22	26	13

독일, 구서독, 구동독의 수치는 합계가 100%를 넘고 있는데 이것은 한가지 질문에 복수의 회답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국제비교한 미국, 서독조사〉

	미 국	독 일
위 탁 자	USCEA	DAtF
실 시 자	캠브리지리포트, 리서치인터내셔널, 브라스킨아소시에이트	알렌바하어론조사 연구소
실 시 방 법	전화질문	면접조사
조사대상자	18세 이상 성인 (캠브리지리포트와 리서치인터내셔널은 1,250명, 브라스킨아소시에이트는 1,007명)	독일국내에 16년 이상 거주자(구서독 977명, 구동독 964명)

〈안전성확보가능성(SA)〉

	안전성 확보 가능	안전성 확보 불가능	특별한 의견 없음	모르겠다	회답 없음
일본		63		30	6
미국 (브라스킨)		59		12	26

다고 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많다. 독일에서는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 사람, 현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한 사람,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해야 한다고 한 사람이 거의 동률로 3가지 그룹으로 나뉘었다.

구서독과 구동독을 비교해보면 구서독은 현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한 사람이 가장 많고, 구동독에서는 추진해야 한다고 한 사람의 비율이 40% 정도로 일본과 같은 정도의 비율이다.

원자력발전의 안전성 확보(SA)

안전성이 확보된다(안전하게 운전된다)고 한 사람이 일본 63%, 미국 59%로 모두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한 사람의 비율이 30%나 되지만 미국에서는 12%로 비교적 낮고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한 사람도 26%나 된다.

(日本原産新聞 2月20日)